

순천대 광양캠퍼스 갈등 정치권 비화

서갑원-우윤근 의원 입장차...지역간 마찰 확산

〈순천〉 〈광양〉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에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광양캠퍼스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순천대 교수회와 직원연합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기성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와 전남도에 각각 광양캠퍼스 설립 관련 도시계획 간소화 협조 공

문을 보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요청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광양캠퍼스 설립인가를 유보한 것은 정치인이 개입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대 총학생회는 “서울 민주당사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겠다”며 정치권 개입에 반발하고 있다. 광양 출신 우윤근 의원의 순천대

광양캠퍼스 신설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 의원은 “광양캠퍼스 건립에 긍정적이던 교육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대학 스스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대학측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순천 출신 서갑원 의원은

“국립대학교 캠퍼스 신설에 국회의원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순천대 광양캠퍼스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낱알이 공개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정치인들이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불법 어업·부정 어업 근절 내가 먼저” 선박 퍼레이드



여수 화정면 어촌계장, 이장, 퍼스트운동 실천위원 등 지역주민 150여 명이 지난 5일 백야항에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내가 먼저 퍼스트 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선박 퍼레이드를 벌였다. 이날 선박 퍼레이드에는 50여척이 참가해 선진 문화 시민의식 실천과 불법 어업 및 부정 어업 근절을 다짐했다. <여수시 제공>

주암호 사랑 걷기대회

8일 보성 주암호 일대

‘건국 60주년 기념 군민 걷기대회’와 ‘제 6회 주암호사랑 걷기대회’가 8일 오전 10시 보성군 복내면 주암호변에서 개최된다.

보성군 환경단체인 (사)자연환경지킴이(회장 임금식)와 (사)주암호보전협의회(회장 현고), (사)세계걷기운동본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복내 잔디공원을 출발해 복내 1교까지 총 9km(2시간 30분 소요) 구간을 왕복한다.

걷기대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보성 북소리예술단의 모듬북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며, 걷기 코스를 완주할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음식물처리기, 친환경세제, 접이식전자저 등 푸짐한 경품이 증정된다.

또 보성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녹차와 친환경배, 참다래 등 우수 농산물을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 홍보·판매코너도 개설된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여수 돌산읍사무소 준공

여수시 돌산읍사무소 신청사가 6일 준공됐다. 구 돌산읍 자리에 지난 3월 말 신축 공사가 시작된 읍사무소 청사는 818㎡의 2층 건물로 13억6천400만원이 투입됐다.

1층은 문서고, 기계실, 복지상담실, 민원실이 위치해 있으며, 2층은 다목적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청사 앞 소규모 광장은 방문 민원인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됐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고흥군 ‘불수감’ 특화작목 육성

〈佛手柑〉

국비 5억원 지원 재배 확대

고흥군이 이색 관상작목인 ‘불수감’(佛手柑)(사전)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고흥군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의 ‘FTA 대응 경쟁력 제고 공모’에 불수감이 선정돼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불수감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12년까지 14ha로 확대 재배키로 하고 다양한 분화재배 기술개발과 가공식품, 천연제품, 약용제품 등 가능성 가공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농촌 체험학습장을 본격 설치 운영해 관광객 체험학습 및 쉼터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감귤류에 속하는 ‘불수감’은 열매 끝이 갈라진 모양이 부처님 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향기가 매우 좋다.

여성 취업박람회 잇따라

20일 여수 진남체육관서 열려

전남 동부권에서 잇따라 여성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순천에서 ‘2050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어 오는 20일 여수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2008 전남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가 개최된다.

“느껴라, 도전하라, 시작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결혼,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박람회는 50개 업체가 참여하는 4개의 채용관과 11개 업체가 참여

하는 창업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350개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박람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여성은 창업상담에서 대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취업박람회 사무국(061-641-0050)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다.

한편 지난 4·5일 순천 팔마 체육관에서 열린 ‘2050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에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구례군 이장단 체육대회

구례군 이장단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천진 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서기동 군수를 비롯해 박민순 군의회의장, 정관석 이장단연합회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읍·면대회를 제기차기, 율동이에 이어 팀별 대항전으로 줄다리기, 바구니공 던지기 등을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이장단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서기동 군수는 격려사에서 “구례군이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단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유치 1주년 기념 음악회·불꽃 경연대회 등 개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1주년인 오는 26일 여수에서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수시는 26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1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여수 시민체육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1주년 기념 음악회, 여수 세계 불꽃 경연대회 등 4건의 대형 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

이다. 박람회 유치 성공 1주년 기념식은 전남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제 10회 여수시민 체육대회는 육상, 배구, 씨름, 줄다리기 등 4개 종목을 중심으로 전남종합경기장에서 27개 읍면동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또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남 실내체육관에서는 서울 내셔널팝

스 오케스트라를 초청, 박람회 유치 성공 1주년 기념 음악회도 열린다. 특히 중국,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 등 4개국이 경연하는 여수 세계 불꽃 경연대회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소호 요트장 앞에서 열린다. 여수시 관계자는 “엑스포 유치 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시민 열기를 다시 모아 엑스포 성공개최로 이어가기 위해 1주년 기념식과 체육대회 등 4대 행사를 병행해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열린 지역사회 공동체’ 앞장

여수 문수동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발표회

여수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민간 소통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여수 문수 관리사무소(소장 오성식)는 최근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단 사장과 아파트 입주민,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문수 관리사무소는 주택공사와 전

남도, 여수시의 지원으로 입주민 특성에 적합한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문수동 새마을 부녀회 등과 함께 꽃 1만3천여 본을 식재하고 녹지공간 조성, 지알로 및 산책로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을 추진했다. 오성식 소장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민

들이 서로 융화됨으로써 하나 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본 부 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춘호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윤정



15일 16일
조명조



17일 18일
송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박현빈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심은도

호박 나이트

광주첨단·특스존엄